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2월 28일(월) 총 2매				
담당부서	노인정책과	담당자	• 노인정책팀장 김창현 ☎440-2811 • 담당자 염상균 ☎440-2815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
보 도 시 점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 최초 시립요양원, 첫 삽 떴다

- 28일, 인천시립요양원 착공식, '23년 9월 개원 목표 -
 - 치매전담실, 감염병전담구역, 게스트룸, 옥상 텃밭 등 특화시설 운영 -

인천시 최초의 시립요양원이 도림동에 들어선다.

인천광역시는 28일(월) 남동구 도림동 인천시립요양원 건립부지(도림동 386-8)에서 ‘인천시립요양원 건립사업 착공식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 최초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인천시립요양원은 총사업비 137억원(국비 44억 원, 시비 93억 원)을 투입해, 지상 3층, 연면적 2,984.25㎡ 규모로 건립되며, 1층은 업무시설과 식당, 2층과 3층은 요양과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 예정이다.

내년 7월 완공해 같은 해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립요양원은 치매환자의 공공형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해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케어를 실시한다. 코로나

19 등 감염병 상황 발생 시 내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전담 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.

또한 게스트룸을 마련해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숙박하며 요양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, 옥상 텃밭 조성과 2층 산책 데크 설치를 통해 입소자들의 신체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박남춘 시장은 “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인천시립요양원의 건립이 어르신 돌봄과 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.” 며 “시립요양원이 안전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.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※ 인천시립요양원 조감도

